여래만이 끊을 수 있는 '무명주지' 번뇌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⑬ 두 가지의 죽음

"죽음에 두 가지가 있사오니,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하면, 하나는 분단(分段)으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의 하게 변역(變易)하여 죽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죽는 것은 허망한 중생을 두고 한 말이요, 부사의 하게 변역하여 죽는 것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대력(大力) 보살들의 태어나는 몸으로부터 위없는 보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죽음 가운데 분단으로 죽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아라한 · 벽지불의 지혜를 일러서 나는 일이 다 하였다 하셨고, 더 해야 할 수행이 남아 있는 과(有餘果)를 증득하였으므로 범행(梵行)이 이미 섰다 하셨고, 범부인 인간세상 사람 · 천상의 사람으로는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일곱 단계를 거치는 학인(學人)들로는 앞서 끊지 못하였던 허망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할 것을 이미 이루었다 하고, 아라한 · 벽지불의 끊은 번뇌로도 다시 뒤의 몸(後有)을 받지는 아니하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을망정 온갖 번뇌를 모두 끊고, 온갖 받을 몸을 모두 다 하였으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니, 왜냐하면 어떤 번뇌는 아라한 · 벽지불로는 끊지 못할 것이 있는 까닭입니다."

나고 죽는 생사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분단생사는 중생들이 육도를 윤회하면서 유루(有漏)의 선악업을 인(因)으로하고 번뇌의 장애(煩惱障)을 연(緣)으로 하여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 안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 것인데 그 과보가 수명의 장단이라든지 신체의 대소 등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단(分段)이라 한다. 이러한 분단을 받아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라 하고, 변역생사(變易生死)는 삼계 안에서 윤회하는 몸을 여의고 성불할 때까지 자기의 수행 정도에 따라 삼계 밖에서 받는 생사를 말한다. 미계(迷界)를 벗으나 오계(悟界)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이에 해당하는 생사를 말한다. 몸의 형태나 수명에 어떤 한계가 없는 생사이다. 번뇌가 없는 선정과 서원의 힘에 의해 미묘한 작용이 불가사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사의 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라고도 한다. 성문이나 벽지불 대력보살 등은 변역신의 상태에서 생사를 받는다 한다. 이 변역생사는 의생신(意生身)으로써 생사를 받기 때문에 분단생사와 다르므로 실질적인 생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분단생사는 지은 업(業)에 대한 과보를 받아 태어나는 것이고 변역생사는 원력(願力)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변역이라 말하는 것은 분단생사의 분단을 바꾼다는 말이다. 이 변역생사의 변역신은 자신의 뜻대로 몸을 받기 때문에 형체가 아닌 심식(心識)으로 이루어지므로 의생신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또 번뇌가 거의 소진(消盡)되었기 때문에 무루신(無漏身)이라하며, 삼계를 벗어나 생을 받으므로 출과삼계신(出過三界身)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위의 본문에서 밝힌 대로 〈승만경〉에서는 아라한과 벽지불, 그리고 대력보살은 번뇌혹장(煩惱惑障)을 끊어 삼계 내의 분단신을 받지 않고 생을 받되 삼계 밖의 변역신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력보살이란 무명을 벗어나 생사에 자유자재한 보살을 두고 한 말이다.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는 힘을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비록 변역생사라 하더라도 생사를 받는 것은 비록 미세하긴 하지만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다. 모든 번뇌의 근본 의지처가 무명주지(無明住地)인데, 〈승만경〉에서는 이 무명주지의 번뇌는 아라한이나 벽지불 등은 끊을 수가 없고, 오직 부처님이라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길장(吉藏)의 〈승만보굴〉에는 무명주지를 설명하기를 어두운 번뇌의 마음에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무명주지라 한다 했으며, 지혜의 역할이 번뇌를 끊는 것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번뇌를 끊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다. 무명주지에는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번뇌가 있다 하였다. 생사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무명주지가 없어져야 하며 이승(二乘)들이 생사를 벗어났다는 것은 삼계 내의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며, 삼계 밖의 몸 곧 변역신을 받는 것까지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후유(後有)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삼계 윤회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범부 8식을 부처님 지혜로…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㊱ 관음신앙의 올바른 견해

전식득지(轉識得智)

불자 여러분! 〈유가사지론〉에서는 보살이 원생하는 원인과 함께 원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악취에서 고통 받는 중생구제를 위하여 악취에 태어나고, 또한 그들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으며, 오직 비원력(悲願力)에 의해서 악취에 몸을 나투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야기하는 거칠고 무거운 업을 모두 끊어 머지않아 전의(轉依)를 획득하게 된다"고 원생하는 원인과 원생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전의(轉依)'란 말은 유식학(唯識學)에서는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표현합니다. 전식득지는 아뢰야식 속의 번뇌를 일으키는 유루(有漏)의 종자들을 모두 소멸시켜서 식(識)을 지혜(智慧)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식사상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실천 위주의 수행을 하는 유가행파에서는 8식의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전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부의식인 전5식을 성소작지(成所作智)로 전환하고, 제6식인 의식을 묘관찰지(妙觀察智)로 전환하고, 제7식인 말나식을 평등성지(平等性智)로 전환하고, 제8식인 아뢰야식을 대원경지(大圓鏡智)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수행을 실천합니다. 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등의 사지(四智) 가운데 특히 '대원경지'는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해서 제법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부처님의 지혜[佛智] 즉 불지견(佛知見)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대해서는 〈대승장엄경론〉권3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8식을 전(轉)하여 대원경지(大圓鏡智)를 얻고, 제7식을 전(轉)하여 평등성지(平等性智)를 얻고, 제6식을 전(轉)하여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얻고, 전오식을 전(轉) 성소작지(成所作智)[作事智]를 얻는다"고 분명히 범부의 8식을 부처님의 지혜로 변혁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생(願生)의 이익(利益)

불자 여러분! 원생의 원인은 중생구제를 위한 대비심의 서원이라고 〈유가사지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원생을 통한 이익은, 자신이 지난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되는 증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원생의 증과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생의 모든 괴로움은 모두가 무명(無明)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윤회 고통의 원인인 무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불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는 이유 역시도 무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무명을 제거하여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불교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신앙하면서 염불 · 주력 · 독경 · 참선 등의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실천해 보았지만 막상 업력 때문에 무명을 제거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황하며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저런 실천방법을 찾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유가사지론〉에서는 서원과 원생을 통한 증과로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켜 정각을 얻어 성불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명이 지혜로 변환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과 원생을 통해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제하는 자비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이 과거에 스스로 지은 악업과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고, 궁극에는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켜 무상정등각을 얻어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⑫ 올바른 견해의 경 ③

환영은 있지도 없지도 않다
〈幻影〉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존재이고, 어떠한 것이 존재의 발생이고, 어떠한 것이 존재의 소멸이고, 어떠한 것이 존재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것들 가운데는 세 가지 존재,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존재, 미세한 물질계의 존재, 비물질계의 존재가 있습니다. 벗들이여, 이것을 존재라고 부릅니다. 집착이 생겨나므로 존재가 생겨나고 집착이 소멸하므로 존재가 소멸합니다. 존재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야말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니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뭇 삶이 누군가의 삶이 아니듯, 태어남 또한 누군가의 태어남이 아니다. 태어남을 거칠게 설명하자면 존재의 다발들이 나타나 감관을 얻는 것이다. 이름 붙은 누군가의 탄생이 태어남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작용이 태어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란 자아의식으로, 존재가 생겨나므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어떠한 형상을 가지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태어남을 면할 수 없다. 반대로 어떤 물질을 나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태어날 수 없다. 존재가 소멸함으로 태어남이 소멸한다.

갈애가 집착을 낳고 집착이 존재를 낳는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남은 집착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 자아이론에 대한 집착 존재를 가진 이상 이 네 가지 집착을 벗어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는 바른 견해는 연기(緣起)를 볼 수 있게 한다. 연기하면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 그 안에 나의 갈애, 나의 집착, 나의 존재가 없음을 정확히 견지(見地)하고 있는 것이다. 견지할 뿐 개입하지 않는 이 바른 앎의 새김 속에서 연기라는 환(幻)이 어떻게 형성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2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지금 당장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들리고 보이는 생생함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실체하지 않는 의식이 만들어낸 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모든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인 하나의 실재는 보이지 않고, 실재가 아닌 환이 실체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환영(幻影)을 지속시킨다.

환영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정신 혹은 감각에 왜곡이 생기면 보이는 것이다. 만약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환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영이 있다' 고도 하지 않고 '환영이 없다' 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환영이 있다' , '환영이 없다' 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 환영을 잡고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과 다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이처럼 욕망에 대한 존재, 미세한 물질계의 존재, 비물질계의 존재 즉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혹은 없다' 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된다. 위에서 태어남을 설명했지만, 우리는 태어남을 모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태어남을 태어남으로 알고,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자라나고 먹고, 자고, 늙어가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의 기억, 온갖 지식과 경험으로는 바른 사유를 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변하는 것과 허물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으로써 올바른 견해를 알기 위해 더는 힘쓰지 않는 것이다. 오온이 신기루를 아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버리기만 한다면 그는 올바른 사유를 성취하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